

## 농촌잠언

박 훈 서 (목사, 충북 충주 야촌교회)

▶ 첫 새벽 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.

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이는 부지런하면 복이 온다는 말이다.

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.(잠언 13:4)

▶ 자식은 길을 낳지 속을 못 낳는다.

제가 난 자식이라도 그 마음은 모른다는 것을 이룬 말이다.

▶ 그름에 안 된 것이 초생에는 되는 수도 있다.

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노력하면 안 될듯하던 일도 잘 될 수 있다는 말.

▶ 돌 뚫는 화살은 없어도 돌파는 낙수는 있다.

급하게 하는 일은 되지 않더라도 인내성 있게 하는 일은 성공할 수 있다는 말.

▶ 소 힘도 힘이요 새 힘도 힘이다.

덩치가 큰 소의 힘이나 몸체가 작은 새의 힘이나 힘이라는 데서는 같다는 뜻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에 따라 제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.

▶ 개도 기름 먹고는 짓지 않는다.

낯선 사람이 오면 개가 짓는 것이 당연한데 고기를 먹이면 모르는 사람이 와도 짓지 않게 된다. 이는 뇌물을 먹이면 일이 잘 성사된다는 것을 비꼬아 한 말이다.

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.(잠언 15:27)

▶ 양도 약이 오르면 문다.

순한 양도 성질이 있음을 나타낸 말로, 순하다고 상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될 것을 뜻하는 말이다.

▶ 대가리 내걸고 개고기 판다.

겉으로는 가치 있는 양 머리를 보이고 속으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개고기를 판다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거짓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음흉하게 딴 짓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.(잠언21:6)